보고 듣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라

☞ 19면에서 계속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 되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아니,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치고 마음 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가 자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 우리의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백 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점점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악심도 근본 자리의 작용인가요

질문 일체가 한마음의 나툼이라 한다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내는 것도 한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부처님 자리에서는 다 좋은 마음이 나야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좋은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바로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 짓도 나오고,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도 그 한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바로 거기다가 다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는 본래 다 알거든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심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전부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대담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 이런 거 잘못되면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앞에 강이 있는데 그냥 그게 길이라고 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냥 가야 옳겠습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서 시키기는 대로만 한다면 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빠져 죽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문리를 틔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던져 보는 겁니다. 던져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빵점을 먹으면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그 시도한 것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냥.

만약에 조용히 일하다가 갑자기 '너 나가서 춤 좀 춰 봐.' 이러면 춤추겠습니까, 또? '응, 내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 누가 되고 자기한테 누가 되는데, 가정에 누가 되고 모두에게 누가 되는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다스려야죠, 이제 마음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좋은 거는 하고 언짢은 거는 '아, 이럭하면 안 되잖아, 누가 되는데.' 하고 거기다가,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러는 거구나.' 하고 거기다가 되놓고, '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놔야지, 제자리에다 되놔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고 온통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만 또 좇아간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사람이 잘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아휴, 우리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판단은 자신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이럴 때가 많죠. 아, 자기네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는 사는 사람들이 판단을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겠습니까? 주인공에서 나쁜 걸 시키든지 좋은 걸 시키든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시키는 거는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걸 시키는 거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잘 내서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거죠, 자기를 가르치는 채찍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자꾸 뜻을 보는 거니까.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도 됐다가 때에 따라 친구도 됐다가, 때에 따라 부처도 됐다가 법신도 됐다가, 때에 따라선 부모 조상도 됐다가 자기 영혼도 됐다 별놈의 게 다 돼서 돌아가요. 한 아버지가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모두 이렇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 묘한 법을 여러분이 잘 채택해서 잘해 나갈 수 있어야만 이 그대로, 무심에서 나가는 그 모든 도리가 법이 돼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다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부름꾼이 뭘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 이 도리를 잘 아시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고,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도(道)입니다. 진리입니다. 본래 진리라는 것은 놓고 가고 있습니다. 놓고 가는데 괜히 여러분이 붙들고 괜히 앨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좋은 것도 자기가 한 거고 나쁜 것도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싸잡아 쥐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게 좋은가를 자기 스스로서 지켜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쁘다 좋다를 거머쥔 채 자기는 '아하, 이것을 운전은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나침반이 나로구나.' 하고서 그걸 거머쥐고 돌릴 수 있게 됩니다.

